

도민증 실적 숫자 치중 자발성·참여도 '뒷전'

김성수 의원, 전북사랑도민증 "보여주기식 운영·행정적 압박" 지적 행정력 동원에 발급 급증했으나 가맹점 197곳 일부 인지도조차 못해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추진중인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과 전북 연구 인사를 대상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 의원은 "최근 운영 과정에서 자발성보다는 행정적 압박과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가 두드러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며,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전북사랑도민증 전 직원 가입 동참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4월 공문에는 실적 제출까지 요구해 일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겼고, 이로 인해 곳곳에

서 불만과 반발이 제기됐다는 것.

발급 실적 역시 행정적 동원 이후 급증했다.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수준이던 발급

건수는 2025년 7월말 기준 23,585명으로 급등했다. 특히 공문이 발송된 직후인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117명이 발급받아 올해 전체 실적의 85.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적 동원으로 만들어낸 실적이 과연 관계인구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 말 기준 가맹점은 197곳에 불과하며, 일부 가맹점조차 본인이 가맹점임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타 지역 주소로도 가입이 가능해 악용 소지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공문 발송이 실적 강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 참여 안내 공문을 통해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촌유학 새 거점 '진안 꿈터마을' 준공

45억 투입 부귀초교 인근 조성 유학생 18명 추가 유치 60명 생활 도·경비·특화프로그램 지속 지원



전북 농촌유학 새 거점 마련

8일 농촌유학가족 거주시설 '진안 꿈터마을' 준공식에 전춘성 진안군수, 김호식 도 교육협력과장을 비롯한 입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축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작은학교를 지키고 마을에 활력을 더할 농촌유학의 새로운 거점이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은 8일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진안 꿈터마을(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터전)' 준공식을 열고, 농촌유학 가족을 새로운 이웃으로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호식 전북도 교육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입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과 유학생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나눴다.

꿈터마을은 총 45억 원이 투입돼 부귀초등학교 인근에 조성됐다. 다가구 주택 9동, 18세대 규모로 지어져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각 세대에는 기본 주거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농촌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번 시설 준공으로 진안군은 농촌유학생 18명을 추가로 유치해 총 6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거주시설 조성 외에도 유학경비 지원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이 농촌유학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전북 전체 농촌유학생은 257명이며, 순창군은 올해 초 비슷한 거주시설을 완공해 94명이 생활 중이다. 이어 임실군은 2025학년도 2학기, 정읍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유학생

김호식 교육협력과장은 이에 대해 "농촌유학이 전북의 작은 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학 가족들에게 전북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춘석 차명주식 투자 10억원 경찰은 확인 거부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에 있다고 조선일보가 8일 단독 혁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3년 이상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을 파악했으며, 거래액은 신고 재산 4억~4

억7000만 원을 훌쩍 넘는 10억여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상당액이 현금 직접 입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 유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금은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포함 45명을 조사했으며,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확인은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AI 관련주를 거래하다 언론에 포착됐고, 경찰 수사에서는 의혹을 시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27년 신규 사업 조기 발굴로 예산 6,300억 추가 확보 기대

재해예방사업 1년 앞당겨 발굴 11개 시군 18개 신규 지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 25일에는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시군 과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풍수해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도내 11개 시군 18개 신규 지구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사업 조기 발굴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일정을 6개월(발굴시기 2026년 1월→2025년 8월) 단축해, 2027년 신청

예정이던 신규 대상지 사업을 2026년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약 6,300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내년 1월까지 총 5억 3,300만 원(도 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 원과 시군 부담금 3억 5,3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조기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선제적 사업발굴과 대응을 통해 안전한 전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25년 8,800억 원에서 2026년 1조 54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하게 검토해야"

헌법 근거 삼권분립 훼손 우려 "국회 직접 법안 통과 방식 위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한 배경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위헌심판이 제기될 우려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법안이 통과돼도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정으로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강조했다. 또한 현 재판부가 2023년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을 합리적으로 기각한 사례를 들어, 국회가 법안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희승 의원

이러 법안이 통과돼도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정으로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강조했다. 또한 현 재판부가 2023년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을 합리적으로 기각한 사례를 들어, 국회가 법안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당대표와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행 헌법과 법률상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설치를 추진할 입장이다.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D 전북타임스

JBT 전북타임스신문

정론직필의 원칙을 따르며,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금암동)5층

전북도, 한우 씨수소 정액 도내 농가 무상 보급

전국 지자체 최초 자체 생산 사례 고능력 암소 선발 과학적 개량 내년 상반기 추가 씨수소 공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생산한 한우 씨수소 정액을 도내 농가에 무상 공급하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지난 5일 천년전북 6호(KPN1885)정액 3천여 개를 생

산해 지역축협을 통해 공급했다. 공급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능력 한우를 보유한 농가로, 각 지역축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그동안 씨수소 정액은 국가 주도로만 생산 판매돼 왔으나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씨수소 정액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됐다. '천년전북 6호'는 지난해 국립축산과

학원이 주관하는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육량과 육질 등 주요 경제 형질에서 고른 유전능력을 보유하고 고능력 암소와의 교배를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암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능력 암소를 선발·지정하고, 계획 교배를 추진하는 과학적 개량에도 힘쓰고 있다. 참여 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근내 지방도 등 주요 경제 형질을 평가해 상

위 20% 암소를 도 고능력 암소로 지정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천년전북 6호는 전북 한우 개량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이다"며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씨수소1두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농가 수요에 맞춘 전북형 씨수소 선발과 정액 보급을 확대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균형성장·자치분권 강조

지방행정연구원 41주년 세미나 '5극 3특' 통한 권역별 혁신 추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국가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농가 수요에 맞춘 전북형 씨수소 선발과 정액 보급을 확대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함께 그려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든든한 동반자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연구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성장전략인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며 "5대 초광역권의 동반 성장과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특화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넘어 권역별 혁신과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지사, 군산 폭우 피해 현장 방문...신속 복구 지시

침수 현황 점검·종합대책 지시 도, 4대 분야 종합 후속조치 시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방문,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6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상생아파트를 찾아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기시설 침수로 정전과 물공급이 중단된 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물공급 방안 등 이재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청 강수 전망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

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도내 다수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가 강우 가능성도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피해지역 긴급 복구를 위해 침수된 도로, 교량,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 후 즉시 배수와 응급 복구를 실시한다. 주택과 상가, 농경지 침수 지역은 소방서와 군부대 등과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제방과 소화천,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예찰을 강화와 배수펌프장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비탈면과 옹벽 등 방수포와 배수 확보 등 안전 조치를 실시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방문,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 <사진=전북도>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재난 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소방서와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던 전라선 전주역~동산역 배수 상태를 점검 후 익산역에서 수송 버스 적정 운행 여부와 승객 불편사항을 살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한국노총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맞손'

노동계와 첫 협력...홍보 본격화 전국 조직력 활용 국민 공감대 형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계와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8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워크숍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혜수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 의장단이 참석해 전국적 조직력을 갖춘 노동계가 전북의 도전에 힘을 보탤다. 이번 협약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상생협

약 모델 구축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달 18일 열린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직능별(노동계·경영계·학계) 상생협약 체결 방안이 논의된 후 첫 번째 결실로 한국노총과 협약이 이뤄져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및 개최 계획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 친화적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전국적 조직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 지지 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전북이 품은 올림픽의 꿈에 한국노총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다"며 "이번 협력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목표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지역 농식품기업들과 글로벌 판로 확대

식품클러스터 공동 수출상담회 현장 계약 5건 70만 5천원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린 '2025 수출비즈니스 데이'에서 총 125건의 상담(145만 달러)과 5건의 현장 계약(70만 5천 달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전북바이오헬스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관 다목적강당에서 3일간 진행됐다. 상담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도가 협력해 마련한 첫 공동 상담회로, 글로벌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도내 농식품기업의 참여를 늘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주요 시장의 해외 바이어가 참

여했다. 1~2일 차에는 전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가 열렸고,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전북 지역 농수산식품기업 32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21개사가 1대1 집중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도내 5개 기업은 현장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감자빵을 생산하는 A업체는 싱가포르 B사와 5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공장 투어까지 이어가며 신뢰를 다졌다. 파우치 음료를 생산하는 D업체는 인도 S사와 10만 달러 규모 협약을 체결해 향후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 음료, 간편식 등을 선보인 3개 기업이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에서 총 70만 5천 달러 규모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신뢰를 쌓고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로 전북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양 기관이



전북도는 지난 3~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2025 수출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협력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 식품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농수산식품 수출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추석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약 4,70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80명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 축산물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적합 원료 사용, 종업원 건강진단 및 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미표시 판매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하여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지 방문

전주 장동·만성동 사업 종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8일 전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관리계획 대상지 2곳을 방문, 현지 확인을 받았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총 2건이며, 제42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총 2건이며, 제42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발전사업 허가신청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명칭 : 장수수분1호 장수수분2호 장수수분3호 장수수분4호 장수수분5호 장수수분6호 장수수분7호 장수수분8호 장수수분9호 장수수분10호 장수수분11호 장수수분12호 장수수분13호 장수수분14호
- 발전소의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390번지
- 발전소의 면적 : 약 19,297 m²
-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 89kW 9개소, 199kW 2개소, 299kW 1개소, 499kW 1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 2026년 5월말 예정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5년
- 발전사업허가신청자 : 장해자 이대환 백형룡 안호원 김소연 김은영 김영애
구자혜 신출 박장배 송미영 정상진 김영진 권주희
- 의견제출기간 : 2025년 9월 9일 ~ 2025년 9월 16일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자메일 제출
 - 주소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남로 324번지
 - 전자메일 : rjc77@naver.com

2025년 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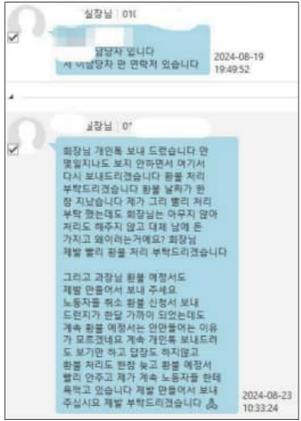


전북경찰, 베트남 이민자 비자발급 사기 피의자 검거

SNS 허위광고로 비자 사기 100여명 상당 피해 7억원 상당 송금받아 편취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는 페이스북 등 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E8-1) 등 발급을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일인당 3000~6000달러 발급 비용 명목으로 7억 원 상당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 1)·송치(25. 8. 6)했다.

피의자들은 비자발급을 위한 법인(OO 자동차 등 22개) 다수를 설립하고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지자체에 MOU 체결 신청만을 한 후, 지자체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SNS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피해자들이 베트남 현지 친인척(도합 100여명 상당)을 모집 후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칭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비자발급이 되지 않자 환불해 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기일을 늦추며 환불하지 않고, 이를 주택매매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편취했다.

사건발생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송금해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시켜줬지만 정작 대출로 인해 한국거주 피해자들은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어려운 처지이며 이 때문에 이혼한 사례도 발생했다.

비자발급 사기로 피해자들이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 확인 후 바로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에서 사건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10명 추가 확인하고, 이들이 모집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진술서 등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 또한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며

며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22개, 피의자가 MOU 신청한 지자체, 대학교, 종교단체 등 실제 여부 확인하여 계절근로자 등 비자발급이 가능한지 수사했으며,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이후 출금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해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6천여만원 사용정황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2차례 출석하지 않고 △제 3자 명의로 핸드폰 개설 및 렌트카 임대해 사용 △서울 소재에 제 3자 명의로 주거지를 임대해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검거하여 구속(25. 7. 30)했다.

아울러 경찰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조해 도내 체류 외국인 상대로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에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 우아2동, 익명의 천사성금 35만원 전달

열다섯 번째 익명 기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웅기)에 8일 따뜻한 발걸음(동장 민웅기)에 8일 따뜻한 발걸음이 찾아왔다. 따뜻한 발걸음의 기부자는 "열다섯 번째 인사드립니다"란 손편지와 함께 현금 35만원의 성금만 전해준 뒤 돌아갔다. 기부자는 정체를 밝히기 싫어했으며 15번째 익명의 기부에 이름을 올리며 누적 성금은 501만원에 이른다.

기부자의 익명 꾸준한 나눔은 큰 울림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따뜻한 발걸음의 15번째 주인공 나눔의 편지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며 그간의 따스함이 전해졌다. 우아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소중한 성금은 기부자의 마음을 존중해 주민 복지를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우 시장,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비전 발표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 마련 등 3대 전략 10대 과제 제시 모든 시민 전문심리상담 지원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정신건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8일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마음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조성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면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매년 최소 1회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총 1118억원을 투입해 △예방으로 든든한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 마련 △일



우병기 전주시장은 8일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주시>

상에서 만나는 전주형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 △나눔으로 심신 건강 지원봉사 활성화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 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과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선도적인 치매안

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오는 2030년까지 현 보건소 부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통합한 (가칭)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주형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전

주형 마음돌봄교육인 '마음 온'을 운영하고, 시민 마음돌봄 축제인 '마음 온 페스타'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겁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음 돌봄 힐링 명소도 발굴' 지정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시민 자원봉사 캠페인인 '온정 한 시간' 추진 △정신건강 특화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가치인정 확대 등을 추진해서 나눔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 발표된 비전을 토대로 더욱 세부적인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보건 의료 관계기관과 평생학습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은 전주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는 전주 대변혁의 가장 중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해 들여다보며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호우 속 32건 긴급구조활동 전개

침수·고립 현장 신속 대응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완산구 전역에서 총 32건 긴급구조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에는 호우주의보 해제 시간(7일 1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182.9mm를 기록했으며,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34대와 소방인력 113명을 투입해 침수·고립 등 피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이번 활동은 △배수지연 18건 △안전 전조지 13건 △구조활동 1건으로, 주택·상가 등 생활공간 침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축고개로의 한 건물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고성능 수중펌프 및 양수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배수작업을 벌였다.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는 폭우로 집 마당이 물에 잠기며 주민 2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로프를 설치하고 인명 구조를 실시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또한 효자동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쓰러진 나무가 전주주에 걸려 감전 등 2차 위험이 우려되었다. 소방대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절단 장비를 활용해 나무를 제거하고 주변 안전을 확보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컸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첫 삽'

2027년 준공 목표 총사업비 403억 투입

전주시가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8일 덕진동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우병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착공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은 옛 야구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7억원 등 총사업비 403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7,3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



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공제작 콘텐츠 모으기로 체험할 수 있는 주제전시관 △국내외 우수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

는 기획전시실 △물입영상관(5면)이 갖춰지게 된다.

또 건물 1층에는 대표소와 카페, 2층에는 사무공간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지원

실이 마련된다.

특히 이곳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7년 전시관이 개관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 공간으로,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문화는 미래 산업을 견인하고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한국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이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MICE 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전북도내 물폭탄 속 도민안전 최우선 '방어'

특별교통안전활동 시행 취약구간 순찰 등 가용 경력 총동원

6~7일 쏟아진 억수 같은 비 속에 전북경찰은 도민 교통사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안전활동을 시행했다.

전북도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지난 6~7일 주말 발효됐다. 양이틀 물폭탄은 군산지역 시간당 150mm 이상 호우에 군산 296.4mm, 익산 239.3mm, 김제 209.0mm, 전주 183.1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7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하상도로와 침수 지역에 경력을 집중배치하며 교통을 통제하고 차량 우회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교통통제구간과 침수 취약구간을 순찰하며 시설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특히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라선 익산과 전주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역 주변에 교통경찰을 신속히 배치해 익산-전주 간 대체 버스 운행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직업체험 진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6일 전주지역 위기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4차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1388청소년지원단(북지지원단) 소속 업체들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실제 관련 직업을 가진 꿈멘토를 직접 만나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업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바리스타 인문영이 꿈멘토로부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듣고, 평소 궁금했던 바리스타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직으로, 현재 135개 기관·개인 72명 등 207명으로 구축돼 있다. 센터는 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4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무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혜선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전주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해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1388청소년지원단 꿈멘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1388청소년지원단 발굴 및 연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은 "전주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의회 “전북은행 예대마진 전국 1위” 지적

“수년 간 높은 대출금리 올해 금고 선정 평가시 공적자금 맡길지 주목”

전북은행이 수년 간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도의원은 8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은행이 수년 간 높은 대출금리를 토대로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

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올해 전북도 금고 선정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도정에 따져 물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이날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금고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전북도 금고는 1금고를 농업, 2금고를 전북은행이 나눠 맡고 있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오히려 2금고가 안정적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평가에서 1등을 한 은행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농업의 평균잔액보다 2금고 전북은행의 평가가 더 많았다.

이처럼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전북은행은 수년 간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했다는 것.

김 의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 구조 역시 금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은 공익성은 물론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은행에게 공적 자금 운용을 계속 맡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정철 기자

‘전주 햅 배’ 16.2t 베트남 수출 선적

프리미엄과일 입지 군허 200t 추가 수출 계획

전주원에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2025년 햅 배 베트남 수출 기념 선전식이 지난 5일 진행됐다.

이정환 전북농협본부장, 임종경 전주원에농협조합장은 “수출을 통해 품질 좋은 전북산 배의 안전성·품질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과일’ 입지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원에농협에서 수출하는 배는 총 16.2t이며 시세로는 약 60백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햅 배는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전북 햅 배는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200t

추가 수출을 예고하고 있다.

베트남은 기후적 특성상 배 재배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북산 배 수출 확대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적식에는 전주시에농협기술센터 소장(강세권), 전주원에농협 배 공선화장(강성열), 주요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해 수출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전주원에농협 임종경 조합장은 “이번 햅 배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 배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지속가능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심전심’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중국산 과일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북 배가 고품질, 안전성을 무기로 동남

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원에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2025년 햅 배 베트남 수출 기념 선전식이 지난 5일 진행됐다. <사진=전주원에농협>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건국대, ‘치유농업’ 발전 공동연구

과학적 효과 검증 연구 인문학다지널 융합기술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와 8일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국대 ‘디지털 인문 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사업(2025-2030년)’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에 협력을 제안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분야에서 과학적 효과 검증 연구 스태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조정책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 인력 양성 △공동 홍보 및

확산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승돈 청장, 원종필 총장,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외연을 넓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이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은 “건국대는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정책 전문성과 건국대의 학문적 역량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농진청, ‘밀짚’ 친환경 소재 가능성 확인

섬유소 추출 기술 개발

최근 국내 밀 재배면적은 (’24) 9,500ha으로 늘어나면서 부산물인 밀짚 발생량도 2만6천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섬유소로 구성된 밀짚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해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소재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버려지던 밀짚 속 섬유소를 추출해 미생물 발효과정에 필요한 영양원인 당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소재 원료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밀짚에는 셀룰로오스 30%, 헤미셀룰로오스 20%를 함유해 있는데, 이를 산이나 알칼리 촉매로 추출한 뒤 효소 처리로 분해하면 글루코스와 같은 당당류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당은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밀짚에서 셀룰로오스 같은 섬유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화학약품을 주로 사용했으나, 추출 효율이 낮으며 한번 사용

후 버려지기 때문에 폐수처리 비용 및 환경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콜린클로라이드와 글리세롤을 섞은 친환경 공융용매(3.2% 알칼리 첨가) 처리기술을 적용해 밀짚의 셀룰로오스 함량을 기존 32.4%에서 46.6%로 약 14% 포인트 높였다.

전자현미경에서도 셀룰로오스 구조가 뚜렷하게 관찰됐다. 추출한 셀룰로오스가 당으로 전환되는 전환수율도 기존 14%에서 93%로 높아져 미생물 발효의 주요 영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공융용매 활용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 밀짚에서 당을 안정적·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하고,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소득작물연구부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에서 섬유소를 대량 추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마련한 것이다”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을 구축,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소득작물연구부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에서 섬유소를 대량 추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마련한 것이다”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을 구축,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대상’ 개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국제통신공업 김성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2025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경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다.

오는 10일까지 안전을 넘어 미래를 밝히다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 △사고조사세미나 △전력설비안전성향 심화대회 등 기존에 따로 열리던 6개 행사를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컨퍼런스” 개최 관련 유공자 헌신을 보다 널리 알리고, 행사 참석자들이 분야를 뛰어넘는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

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수석경제정책관, 각계인사,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및 상장 38점 등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성조 대표는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UPS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30종 이상의 특허와 인증을 통해 전기 사용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산업포장은 진명전력주식회사 배장수 대표와 전기안전공사 조성국 홍보실장이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전기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분들의 노고 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통해 3일간 집중적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각종 재난 감시부터 사고 예방 제도의 수립 등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세계개편 연구 관련 논의

비수도권상공회의소 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정대 회장(전주상의 회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김정대 회장, 최재호 경남상

공회의소협의회 회장(창원상의 회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구미상의 회장) 등이 함께 협의회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계개편 연구’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공동 수행 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

균형 해소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계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공인,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정대 회장은 “오늘 회의는 지역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촉구

11개 공공기관 등 참석 부패적절·윤리의식 강화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건설인 단체이다.

전북건설단은 “전북권 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2006년 김제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선정되면서 비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경단체의 국내외 반대 활동과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

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건설단은 특히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오는 11월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며, 이미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비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건설단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 사업”이라며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기에 건설하고 개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건설단 소재철 회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수출포도연구회, 포도산업 발전 품평회

전북수출포도연구회는 9월 8일 남원시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전북 포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종의 다양화를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0 여종의 국내외 재배 품종에 대한 특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농업인 뿐 아니라 포도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로 성황을 이뤘다.

국내 포도 수출은 ‘샤인머스켓’을 중심으로 2021년 2,315톤에서 2024년 3,858톤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전북 수출량은 약 45톤으로 전체 포도 수

출량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품평회에서 농가의 관심이 높은 ‘슈팅스타’, ‘코코볼’ 등 국내 육성 품종과 ‘윈나’, ‘찌니돌체’ 등 일본 도입 품종을 포함한 다양한 최신의 품종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시식의 기회가 제공됐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 이대훈 회장은 “이번 품평회는 단순한 품종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선도농업인들의 포도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AI 기반' 업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식편의점·JB메신저 연동 '서비스' 운영 교사 행정업무 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 도구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는 교사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매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과

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B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스'의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자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이 호응을 높이고 있다. 지난 7~8월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예전엔 업무 매뉴얼

을 찾으려면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해서 번거웠는데, 이제는 '서비스'에 질문만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이용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스"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AI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명칭 공모

12일까지 참여·3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직장운동경기부 명칭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정 스포츠단으로 새롭게 구성, 통일성과 정체성을 주기 위한 취지다.

현재 도 체육회는 육상과 카누, 바예슬론, 수영, 철인3종, 롤러, 세팍타크로, 양궁, 검도 등 총 9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명칭에는 스포츠단 표현이 들어가야 하며 도 체육회의 핵심이념과

가치 등이 담겨야 한다.

또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스포츠단의 대외적 이미지 함양은 물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이 함축돼야 한다.

응모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이며 전북체육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은 이메일로 하면되고 팀 명칭과 의미, 제안자(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하면 된다.

도 체육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명(팀)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직업계고 학생 58명,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 연수

남원제일고 등 6개 학교 호주 시드니 연수 참여

도내 직업계고 학생 58명이 호주와 일본에서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한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6개 학교 사업단에서 학생과 인솔교사 등 총 70명이 '2025 직업계고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 학교는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주생명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유니테크고, 전주공업고 등 6개 학교 사업단이다.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주생명과학고 사업단은 지난 5일 호주 시드니로 출발해 내달 18일까지 연수에 참여한다.

현장실습은 원예조경, 전기전자, 기계 가공, 조리제빵, 애견훈련, 헤어미용, 마필관리 등 7개 직무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단순 연수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직접 습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형'으로 설계,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성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들의 국제 직업역량



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글로벌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꿈나무 연구성과 발표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 교수)이 지난 6일 전북대 사범대학 과학관에서 '2025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교육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교육은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생을 선발하고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1명의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주말 교육, 여름 방학 집중교육, 야외조사활동, 체험활동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참여 학생들이 수행한 교육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미래 과학 동량으로 커나갈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범대와 자연과학대 교수진의

지도로 수학 분야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를 비롯해, 생물 분야 '전주전 생태계와 보존 방안', 지질 분야 '한반도 지구조 진화'와 '전북 지질 구조' 등 4개 분야에서 지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다.

특히 IT융합 분야는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협력해 수준 높은 성과물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덕호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장은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발표하며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 과학 인재들이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 영재 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6학년도 전북 수능 응시자 총 1만7,935명

작년 대비 894명 늘어 재학생·검정고시·졸업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는 총 1만7,935명으로 지난해보다 894명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재학생은 1만3,592명(77.8%), 검정고시 출신은 616명(3.4%)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8명, 78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3,727명(20.8%)으로 지난해보다 182명 감소했다.

가파르게 증가했던 졸업생 지원자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2.1%p) 줄었으나 여전히 20%대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9,158명(51.1%), 여자 8,777명(48.9%)으로 남학생이 381명 더 많았으며, 이는 올해 재학생 성비 차이

와 여자 졸업생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선택과목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영역은 화법과작문 1만 3,674명(76.2%), 언어와매체 4,117명(23.0%)으로 화법과작문 과목 선택자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화법과작문 선택자 비율은 48%p 증가한 반면 언어와매체는 5%p 줄어 과목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수학영역은 확률과통계 9,474명(52.8%), 미적분 7,362명(41.0%), 기하 455명(2.5%)으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 확률과통계는 전년 대비 8.6%p 증가했으나, 미적분은 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확률과통계 선택자 비율이 처음으로 미적분 선택자를 앞질렀다.

영역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7,514명(97.7%)이 선택했으며 한국사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모든 수능 지원자가 응시

한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영역 9,317명(51.9%), 과학탐구영역 4,944명(27.6%), 사회·과학탐구영역 3,094명(17.3%), 직업탐구영역 96명(0.5%)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회탐구영역과 사회·과학탐구영역이 각각 6.5%p, 6.3%p 증가했으나, 과학탐구영역 13.2%p 감소해 사회탐구영역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744명(15.3%)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0.3%p 늘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과목별 지원자 변동으로 성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올해는 고3 수험생 증가로 대입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원 대학 전공을 꼼꼼히 살피고, 남은 기간 자신의 입시 전략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대, 신규 직원 인사 발령 임명장 수여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8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신규 직원 인사 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규 임용된 김시원(시8급), 김혁권(행정9급)은 총무처 근무를 명 받았으며, 향후 대학의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 전반에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아이디어 옥션 DAY' 성료

지역가치 활용 아이디어 발굴

전주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권순태) 창업지원단은 지속가능한 로컬창업에 위한 핵심인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아이디어 옥션 in 전주'의 '아이디어 옥션 DAY'를 지난 5일 서울 성수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옥션 in 전주"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로컬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아이디어 옥션 DAY를 위해 총 10개 팀(전주대학교 경영학과, 로컬벤처학

부, 산업공학과, 반려동물학과 등 재학생 참여)이 참여해, 지난 2개월간 아이디어 피칭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진행해 각자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이어왔다.

아이디어 옥션 DAY에서는 참여 팀을 비롯해 전북내 로컬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약 30여 명이 참여해, 시간 도출한 로컬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경쟁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아이디어는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었다.

전주대는 이처럼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연계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로컬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당신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전북타임스 연중캠페인

군산시, 23일까지 모범음식점 모집...11월 최종 지정

군산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2025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면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지정조건은 △좋은 식단 실천 △덜어먹는 식문화 등 위생관리상태 우수 업소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정된다.

군산시는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각종 위생용품 등의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부터 군산시 누리집, 홍보 책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 위생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국의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군산시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는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축제와 행사 △호우와 태풍 △산불과 화재 △사업장 안전 등 네 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축제 및 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가스 사고 등이 포함된다. 호우 및 태풍 관련해서는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 등이 신고 대상이다.

산불과 화재 부문에서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꽂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 △소화시설 미정비가 신고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안전 부문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낙하물 방지망 파손 △화학물질 관리 부실 등을 포괄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가을철 집중 신고'를 선택하거나 앱 내 퀵 메뉴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빠른 조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과과정 참여자 모집

정읍시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과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것으로,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경우 만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진행된다. 수강생은 오전반과 오후반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50만원의 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 △MBTI 검사 및 퍼스널컬러 진단 △심리검사 △인태이 클래스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네이비폼이나 고용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과과정은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마지막 과정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해 성장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농산물가공센터, 농가 지원 든든

농업인 매출 3억 돌파 제품 생산~안정적 판로 지자체 모범 사례 주목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가 창업과 소득증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시는 농산물의 부가치 증대와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거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현재 잼류, 음료류, 유지류, 빵류 등 13개 유형 51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품은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롯데타워몰 커넥트투 등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지난 달 기준 올해 농업인의 매출이 3억 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서울푸드, 팥도밤상페어, NS푸드페스타 등 대형 박람회와 판촉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익산 농산물 가공 제품의 전국적 인지도 확산과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식품·제조·가공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유통·전문판매업을 맡아 '생산-가공-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농식품 선순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제품 생산에 지역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전국 지자체들이 찾는 모

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9년 개소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68㎡ 규모로 1층 가공센터와 2층 교육장을 갖췄다. 또 전처리·건조·분쇄·추출·농축·착유·포장 등 60종 78종의 장비를 보유해 농업인의 다양한 가공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가공 창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교육 △창업 실행 △자립 정착 3단계로 나눠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농업인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익산서 전지훈련

21일까지 종목별 남녀 선수 47명 참가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짊어질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익산시에서 뜨거운 담금질에 돌입했다.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 전지훈련'이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략적 기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한다.

14일간 진행되는 훈련에는 사브르, 에페, 플뢰레 등 3개 종목에서 남자 선수 24명, 여자 선수 23명이 참가한다. 그리고 김창곤 전임감독을 포함해 지도자 6명, 의무 트레이너 1명이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짊어질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익산시에서 뜨거운 담금질에 돌입했다.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펜싱 전용 훈련장을 비롯해 우수한 체육시설과 쾌적한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 초에

이어 다시 익산을 찾아준 선수들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수들이 훈련 기간 동안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질병 치료비 지원

골절·화상 진단금 등 총 19개 항목 보장

정읍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읍시는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전액 시·도비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현역 복

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보험료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해 청년 본인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등 총 19개에 달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하기 쉬운 손·발가락 부상과 정신질환위로급·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미래농업 선도 앞장

2025 한마음대회 성황 지속가능 농촌 다짐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고평화)와 한국생활개선회군산시연합회(회장 배지영)가 8일 군산일명체육관에서 '2025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뿌리깊은 농업, 희망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립도시 군산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군산시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 통합 6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강민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결속을 다지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회군산시연합회가 8일 '2025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군산시>

강민준 군산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군산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려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군

산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농업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더욱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모녀의 하루 in 군산' 가을편 참가자 모집

10일 40팀 선착순 모집

군산시가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모녀의 하루 in 군산' 가을편 두 번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1회차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참여인원을 40팀(80명)으로 확대 모집한다. 접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2회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K-관광선 유람선을 타고 말도, 명도, 방축도 등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 풍경을 만끽하며, 탁 트인 바다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며 군산의 대표 미식인 박대구이 정식을 맛보고 소하고 담백한 미식 경험까지 즐길 예정이다.

엄마와 딸이 함께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퀴즈 게임 이벤트도 진행된다. △군산 관련 퀴즈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 포즈 따라 하기 등 다양한 체험이 재미를 더한다.

모녀의 하루 in 군산의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영상 낭독 시간도 준비돼 있다. 시는 응기종기 모여 앉은 엄마와 딸이 서



로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직접 읽으며, 감동적인 교감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여름 종료 후에는 참가자 대상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녀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하는 모녀의 하루 in 군산이 매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군산을 찾은 많은 분들이 특별한 감동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더불어민주당 지역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건의사업 보고·현안사업 공유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함께 '2025년 하반기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주요사업 담당 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읍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 △국가예산 주요 건의사업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특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만, 국회 심의 과

정에서라도 정읍의 핵심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제는 지난 3년여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래 전략사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며 "국회 단계에서 정읍의 핵심 사업들이 한 건이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미래 정읍을 이끌어갈 전략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의 주요 현안과 지역공약이 국가 차원의 예산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당·정·협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문화도시 익산' 담은 특별한 비누 세트 출시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담은 특별한 기념품이 탄생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 디자인과 실용적 상품으로 구현한 '비누 세트 기념품'이 출시됐다.

이번 상품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열두달 비누공방이 협력해 기획·제작됐다. 열두달 비누공방은 속리산 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에 입주해 있다.

비누 세트는 문화유산과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의 '미륵사지 석탑'과 2009년 미륵사지 서탑 사리공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 '금동제사리의호'를 담았다.

또 익산 문화도시조성사업 비전인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형상화해 열두 달 탄생석의 빛깔과 형태를 반영해 제작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비누 세트는 익산의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해 문화도시 익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이상 무'

정읍시는 올해 3분기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시설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하수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농촌·산간마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급수원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로 법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검사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산내면의 소규모급수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대장균·분소·냄새·맛·잔류염소·우라늄·라돈 등 총 15개였다. 검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외뢰해 진행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안전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취약 요인도 꾸준히 점검해 주민들의 음용수 안전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 교촌마을, '동네 살리기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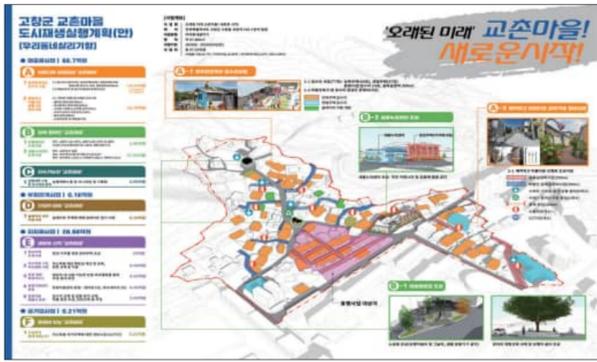
내년~2029년까지 총사업비 97억원 투입 위험경사로 등 정비

고창군의 오래된 주택가와 가파른 골목길이 정비되고, 청년들이 웃음 짓는 곳으로 변신한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신규공모'에 고창읍 교촌마을(군청 뒤편)이 선정됐다. 앞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특화주택'과 함께 기존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마을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키워진다.

고창읍 교촌리는 마을 한가운데 학교가 있고,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 날들이객이 몰려오는 곳이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낡고 오래된 주택과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로 밤에는 우범지대로 인식돼 왔다.

이에 고창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97억원(국비 40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정비와 위험 옹벽정비 등을 진행한다.

아이 유포차와 장애인들의 휠체어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누구나 편한 길'도 만들어진다.

특히 교촌마을에 주민들을 위한 '새봄 어울림센터'를 만들고 문화강습과 주민회의 등이 이뤄지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여기에 마을입구 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생긴 빈공간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용면적 45.54㎡의 투룸형으로 구성되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약 4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마을 공동체에 주민참여를 높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밝고 건강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우수'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중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의 2023~2024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우수기관·우수기관으로 10년 연속 선정되면서 꾸준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16개 지표와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해서 2년간의 사업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한 것으로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는 각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탈수급 지원 △맞춤형 직무교육 진행 △외부 공모사업 참여 △자활기업에 대한 적극적 업무지원 등의 노력 등이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는 6개 자활근로사업단, 4개 자활기업, 4개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김중수 센터장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준 센터 종사자, 자활사업 참여 주민, 부안군 등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피지컬 AI 산업 국가 차원 전략 필요"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정책과제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 구상 포럼을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이원택 국회의원회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및 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중앙부처 관계자,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은 1부 주제 및 분야별 발표와 2부 관계기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미래 모빌리티가 변화시키는 미래도시),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AI-Driven Innovation in Future Agriculture), 고소작업 건설로봇 사업단장 안창범 서울대 교수(피지컬 AI시대의 건설로봇 기술 개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전북도, 김제시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

략 방향과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누가 먼저 현장에 적용하고, 누가 먼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 건설, 특수목적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 국회,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앞장서겠다"며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5일 민생안정지원금 마을별 지급 시작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 주민등록주소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

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직원들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각 마을별 현장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지급되는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이 부안군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글로벌 특장 산업 선두 주자 나선다

19~20일 '미래 특장차 산업 박람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실내체육관 일원을 무대로 '제3회 미래 특장차 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대의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김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특장차 산업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시민들이 특장차

업에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력을 가진 청소차, 소방차, 초소형 전기차 등 40여종의 완성차와 그 밖의 특장 부품이 전시되며, 고소 작업차 탐승체험, 전기굴착기 조종 체험과 스피드 드론 체험, 사족 보행로봇 전시, 드론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 등 특장차 산업과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차세대 미래 주역인 유치부·초등부를 대상으로 어린이 특장차 그림 그리기 대회, 특장차 골든벨, 자동차 키트 만들기체험 등으로 특장차 산업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준비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김제시 특장차 산업 확장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김제시가 특장차 산업 선도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 7일 새벽 3시 40분, 도시사 주재의 재난대책회의를 통해 호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침수)인 청하면 내신마을에서 청신마을 경로 당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한 정성주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빠른 피해 복구와 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서 정 시장은 용지 배수로, 축산 소제지, 황산 의곡마을 등 주요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관계부서에 철저한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7일 오후 3시에는 이원택 국회의원회와 정성주 시장이 함께 호우 피해 현장 4개소를 방문해 피해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시는 앞으로도 호우 피해 최소화와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청년마을, 지속가능 청년 정착 모델 '주목'

성과공유회서 발전 방향 제시

농촌마을에서 청년들이 모여 장담하기를 체험하는 '고창 청년마을(원더청년)'이 주목받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청년마을 성과공유회에서 '고창 청년마을 원더청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창군 청년마을 '원더청년'(고수면 소재)은 고창의 전통자원인 용기와 씨간장을 핵심 테마로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더청년'은 △장 담그기, 발효 유산균 등 전통 체험 △승 놀이터를 활용한 자연 체험 등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발표 후 이어진 토의에서 고창군은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면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더욱 높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고창군의 선제적 접근 방식을 보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마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청년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11일 이민호강사초청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소통법강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1일 제715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연예인들의 말하기 선생님이로 유명한 이민호 제이라이프스쿨 대표를 초청해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대표는 지난 2010년 1억 상금의 영어 강사 TV오디션 '1억원의 리브롤'에서 우승한 영어 강사로,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나다움을 찾아야 내 다음이 보인다' 등 소통과 공감에 관한 글을 쓰고, 연예인, 기업 임직원 및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을 망라하는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 대표의 강연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익히고, 경청과 진심 어린 표현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고구마 수확 현장 찾아 생산 농업인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는 8일 공음면 건동리 일원 1만6528㎡(약 5000평) 규모의 고구마 수확 현장을 방문해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농업분야 관계 공무원, 고구마 재배농가, 당산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현동 농가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식을 시작해 5월 25일까지 약 70만 평 규모에 국내 인기 품종인 '호풍미', '메니허루까'를 심었으며, 앞으로 약 5000톤 가량의 고구마를 수확할 계획이다. 수확된 고구마는 쿠팡,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채널에 납품될 계획이다.

고창 고구마의 우수한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빈츠·마가렛·카스타드·빵배레·찰떡아이스 등 13종의 인기 제품을 계절상품으로 한정으로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스타벅스에서는 고구마말랭이 제품 '한입에 속 고구마'는 출시했으며 전국 매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구마는 우수한 품질과 높은 당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 명성을 지켜내고, 고창 고구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임산부의날' 맞아 임산부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고창군보건소는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존중 문화 확산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 달간의 특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보건소는 단일 행사가 아닌 군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빠가 직접 체험하는 '임산부 체험복 대어' △직장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 배려 표지 배부' △신규 등록 임산부 대상 '웰컴키트 증정'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응원 메시지 보드' 등이 있다.

특히 '아기에게 전하는 첫 편지, 임산부에게 전하는 응원 한마디' 보드에는 임산부는 아기에게, 지역주민은 임산부에게 응원의 글을 남겨 보건소 내에 게시할 예정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임산부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아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활기 가득 'B:ON 오늘밤, 부안을 켜다' 성료

부안군은 지난 5일 자연에너지파크

광장에서 열린 제4회 부안청년축제 'B:ON 오늘밤, 부안을 켜다'로 청년과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자연에너지파크 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청년 서포터즈의 댄스 공연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페이스페인팅과 참여형 이벤트가 이어지며 축제장은 젊음

과 활기로 가득 찼다.

축제 후반부에는 DJ 다미와 DJ 엔진의 EDM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열정으로 가득 채웠고, 초청가수 래원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청년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오늘만큼의 청년이 주인공이 돼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뜻깊었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일자리박람회, 구직자 2천여명 '복직'

100개 기업 참여, 현장 면접 채용관 '열기' 150여명 1차 합격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우수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채용설명회, 채용관, 취업특강&토론포럼, 인사상담, 체험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는 2,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뜨거운 취업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40개 기업이 참여한 채용관 현장 면접은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활기를 더했다. 이날 1차 면접을 통과한 150여 명의 구직자는 향후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취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골드앤, 일진하이솔루스, BT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 채용설명회에서는 채용 정보는 물론



지난 4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 지역 우수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진=완주군>

은 근로환경과 복지제도에까지 자세히 소개해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취업특강&토론포럼에서는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특별 초빙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인사상담관에는 ㈜정식케미칼, BTE, 일진하이솔루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새만금개발공사, 육군본부,

완주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심층 상담과 전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취업 전략을 제공,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누구나 정착하고 싶은 경제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고향사랑기부하면 '전북현대 굿즈' 온다

명절맞이 기부 활성화 이벤트 10만원 이상 기부 시 추첨 대상

완주군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관광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8일부터 28일까지 1차,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되

며, 총 110명을 선정해 완주 힐링투어 상품권과 전북현대모터스FC의 특별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이벤트에서는 △고산자연휴양림 숙박권 △구이 안덕마을 식사권 △삼례 새참수레 식사권 △대둔산 케이블카 왕복권 등 완주군 대표 관광·체험형 상품을 마련해 지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2차 이벤트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FC와 협력해 △미니 머플러 △친필 사인 볼 △친필 사인 티셔츠 등 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 굿즈가 제공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청소년의회 AI로 와푸축제 CM송 제작

완주군 어린이·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 대표 축제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2025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CM송을 직접 작사·제작하며,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축제의 설렘과 즐거움을 담아낸 것이다.

이번 CM송 제작에는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삼례권역 의원 10여 명(위원장 변아현)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작곡 도구를 활용해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었다.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서 만나요! 일년에 단 한 번! 완주군의 대표 축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푸르른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즐거움 가득한 축제 한마당,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완주에서 함께해요!"라는 가사를 통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생생하게 전했다.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삼례·봉동·이서·고산 등 4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권역은 자체 주제를 정해 정책 제안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삼례권역 의원들은 올해 활동 주제를 '완주도시 알리미 청소년홍보단'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완주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CM송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완주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자살유족 자조모임 '마음토닥' 성료

남원시보건소 3달간 10회 진행 유족 정서 회복·네트워킹 강화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족을 위한 자조모임 '마음토닥'을 6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자살 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이끌었다.

'마음토닥'은 자살 유족들이 겪는 죄책감, 낙인감, 사회적 고립 등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임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살 유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10회기 중 언제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접근성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힐링 활동,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집단 나눔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유족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회복력과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속적인 모임과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필요시 사회복지 및 의료 자원과의 연계도 지원해 유족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고자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19회 도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전북장애인체전 26일 고창서 개막 순창군선수단 종합 6위 달성 목표

순창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 군수)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위한 결단식을 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단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오은미 도의원 등 내빈들과 장애인체육회 임원, 종목별 선수와 감독 등 13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결단식은 개최, 내빈 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출전 현황 보고, 단기 수어,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수와 임원 등은 결단식을 통해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순창군은 이번 대회에 총 210명(선수



순창군 장애인체육회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위한 결단식을 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단, 임원, 활동 보조인 포함)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게이트볼, 골볼, 론볼, 보치아, 육상 등 15개 전 종목에 출전할 계획이다. 특히 론볼, 볼링, 파크골프 3개 종목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순창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순창에서 열린 제18회 대회에서는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개최식은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폐회식은 9월 28일 오후 1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자활센터, 복지부 경영평가 5년 연속 '우수'

신규 사업 발굴·참여 확대 성과 인센티브 1,871만원 확보

완주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증감률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자활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과를 도출했다.

완주지역자활센터는 신규 사업 발굴

을 통한 참여자 확대, 사업단 매출 증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증가와 안정적인 통장 유지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1,871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진왕 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사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성과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와 자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지역자활센터는 5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및 반찬지원사업, 공공기관내 카페운영, 조코파이제조생산 등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자매도시'서울 구로구와 청소년 문화교류

자매도시교류 25년째 이어져 남원시 청소년들 서울 명소 탐방

남원시는 지난 5일부터 2일간 자매도시인 구로구의 초청으로 관내 초등학교생과 인솔자 20명이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구로구의 남원시 방문에 이어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은 양 도시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시 청소년들은 5일 구로구로 출발하여 △서울퓨처랩 △G밸리 산업 박물관 △넷마블 게임박물관 △롯데월드관람 등 1박 2일간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문화교류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1999년부터 자매도시로서 인연을 맺어온 구로구와 올해도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매도시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초등학교생들이 지난 5일 자매도시인 서울 구로구의 초청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남원시>



지난 6일 운봉 서림공원에서 월광포차 달빛콘서트가 1천여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남원시>

남원 월광포차 달빛콘서트 운봉 서림공원에서 성료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기원 지역 먹거리·플리마켓 등 다채

지난 6일 운봉 서림공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기원하는 월광포차 달빛콘서트가 1천여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남원 시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지역 예술 동아리와 지역 가수를 비롯해 박미경, 박남정 가수 공연과 95시 민 참여노래방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 관광 관

텐츠 확대와 지역 예술 동아리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운봉농협 농특산물 할인판매와 운봉애화회남만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 소멸을 막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국유지 100% 활용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남원임을 강조하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남원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놀이로 가족유대감 강화 부모·아동교육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2번째 교육으로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법을 공유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놀이와 대화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서로에게 한결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과 놀이치료를 통한 자기 이해 활동 공동 놀이를 통한 자기조절 능력 강화 등으로 구성된 참여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순창군은 한국부모교육연구소와의 후원 협약을 통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건강한 양육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아동들도 그림과 놀이치료, 공동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모·아동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먹거리
신개발 음식 시식회 개최

진안군은 8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개발에 따른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식회에는 관내 음식점과 카페 4개소가 참여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120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와 맛·기호도, 가격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기호떡 △돼지국밥 △마이산 몽블랑 △마이산 꽃감식혜 슬러시 △흑미 파르페 등 총 5종의 신메뉴가 선보였다. 특히 '마이산 몽블랑'은 계절별로 다른 재료를 접목해 △봄 녹차 △여름 요거트 △복숭아 △가을 쪽인절미 △겨울 딸기 등 사계절의 매력을 담은 디지털로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 결과 돼지국밥은 진안산 흑돼지 수육을 얹어 불맛과 짭짤한 풍미로 호평을 받았으며, 고기호떡은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소가 어우러져 높은 인기를 얻었다. 꽃감 슬러시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50~60대에 호평을 받았다. 흑미파르페는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눈으로 먼저 즐길 수 있어 20~30대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마이산 몽블랑은 마이산을 형상화한 모양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선물용 디지털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식 메뉴를 선보인 업소는 △카페 마이마이(몽블랑·흑미파르페), △마이산 힐링 하우스 카페(꽃감식혜 슬러시), △조대감네 전주회관(고기호떡), △백제회관(돼지국밥)이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 가격과 보완점을 반영해 지역 대표 먹거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마을사업 연계
소방 구조훈련 실시

임실군이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관촌면 슬치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에서 임실소방서와 함께 긴급 구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구조훈련을 연계 추진했다.

슬치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23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14억 3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 6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

마을 내 노후된 주택 등의 주거 여건과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내 여러 원인에 따른 인명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최초 신고에 따른 빠른 출동 조치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의 상황에 맞는 구조활동을 모의 훈련으로 시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안전 사고 방지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훈식 군수와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표창, 축하, 여성단체 활동 영상 상영,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표창에서는 개인 8명과 단체 1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지역 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에서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바라본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아동과 청소년이 바라는 대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

총 52억원 예산 투입
국제양궁장과 인접
지상 4층 규모·26실 숙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됐다.

군은 지난 5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지훈련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양궁장이 위치한 오수면 금암리 486-1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국비 16억원과 도비 24억원, 군비 12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217㎡이며, 1층에는 로비와 휴게 공간을 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을 배치했으며, 장애인실 1실과 일반 객실 25실을 갖춰 동



임실군은 지난 5일 준공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시에 52명의 선수가 체류 가능하다.

전지훈련센터 인근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은 박성현 선수의 그랜드슬램 달성 기념을 위하여 연면적 2,714㎡, 대지면적 73,683㎡ 규모의 국제경기장으로 주 경기장 29,400㎡, 경기 운영시설 2,675㎡(3층) 등을 갖추고 2018년에 준공된 바 있다.

전지훈련센터가 완비되면서 향후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 주요 대회를 유

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을 찾는 국내외 선수단의 장기체류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 향상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시 숙박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었으나, 이번 전지훈련센터 준공으로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기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핵심 SOC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건의

황군수, 국토부장관 만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8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났다.

이날 만남은 무주군 핵심 SOC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지역 접근성 개선과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사업과 △무주 무봉~김천 대덕(국도 30호)과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도로 개량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간선 도로망 효율성을 높이고, 무주와 성주 등 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전주~무주 직결 노선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내세

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에서 부산·울산·경남으로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무주 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 또한 영호남을 연결해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

청년과 함께 그리는 축산 미래
유전자원 보호·번식 기반 강화

최훈식 장수군수가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축산위생과장 등 군 관계자 6명과 지역 한우 농가의 청년 농업인 5명이 참석했으며 장수한우의 우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 한우농가들은 장수한우의 우수 혈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우량 암소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원의 보호와 번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우량 암소 사육농가에 대한



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이 우수한 한우 송아지 매입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번식농가 대상 각종 보조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한우 암소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축산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우 산업은 장수 축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청년 축산인은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다"며 "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10만원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무주군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어르신 상품권 홈페이지(https://ssvoucher.co.kr) 또는 전용 전화 상담실(1551-9998)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이다. 상품권은 전국 제조업체 가맹 스포츠 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 시설은 제조업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받아 12월 31일까

지 사용할 수 있다.

노상은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진흥팀장은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이 스포츠 시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농가·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대회 개최

우수근로자 표창 수여

진안군은 지난 6일 문예체육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주, 관내 결혼이민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55명을 시작으로 2023년 390명, 2024년 558명, 2025년 761명의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도입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파종기에 입국해 농한기인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군은 이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한마음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MOU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490명과 농가주 220명, 결혼이민자와 가족 초청 근

로자 270여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아끼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쓴 마령면 강성백 씨 등 농가주 6명이 진안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성실한 근무로 청정 진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 6명에게도 우수근로자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 후에는 필리핀·베트남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준비된 만찬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직접 준비한 단체 댄스와 자국 노래를 선보이며 농가주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우수근로자 표창을 받은 필리핀 데오그라시아스 씨는 서툰지만 정성스러운 한글 편지로 "진안에서 큰 돈을 벌며 가족이 행복해 하고, 선진 영농기술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전춘성 군수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 추진상황보고회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최종 점검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청 회의실에서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 프로그램별 담당부서자 모두 참여해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축제 콘셉트에 맞는 길러 콘텐츠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으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막

바지 준비에 속도를 더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2007년 제1회 축제 출발해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여야 한다"며 "지나치게 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문객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운영으로 더욱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을 되짚으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막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주요 현지 사업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

진안군 주영환 부군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군 주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월운정수장, 산림치유 특화골목 등 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태, 주민 편의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모든 행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면서 "각 사업장의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해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차질없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임실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세 합동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예고 및 압류등록·추심,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고 조회 후 신속한 금융 재산압류 조치 및 추심을 진행한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제공등록,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4%), 재산세(25%), 자동차세(16%)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신용카드매출차원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액·상속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 변호관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했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재경무주군민회 설천면민회 이경도 회장, 무주에 100만원 기탁

이경도 재경무주군민회 설천면민회장이 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경도 회장은 "무주의 자랑이자 출향인들의 긍지인 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게 돼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가 더 많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불러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천 전도사가 되어 상생의 미덕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탁식이 진행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출향군민화합한마당'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지역의 출향인 4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군, 백중날 맞아 전통문화 계승과 화합의 장 마련

완주군은 지난 6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백중날 전통문화축제가 지역 농약인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고유의 명절인 백중(百中)을 맞아 지역의 농약 전통을 계승하고,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관내 12개 농약단이 참여해 열린 공연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농약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백중은 뿌리 깊은 농촌 문화의 정수를 되새기고, 지역민이 하나 되는 날"이라며 "농약단의 활동이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지역 문화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농약분과 단장은 "지난해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백중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농약의 울림이 지역민의 화합과 자긍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얼음물 나눔 봉사 진행

한옥마을환경정화봉사활동

지난 6일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얼음물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곽종렬) 활동은 향교위원회와 흥한표 전 한옥마을 보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활동 중 수거한 양은 50L 종량제 봉투 5개, 총 250L다. 그동안 전주지부의 활동을 여러차례 봐왔던 한 중소기업은 이번 봉사 취지에 공감하며 생수 200개를 후원해 이날 주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해 시원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자 김미래(28·여·전주 완산

구 서서학동) 씨는 "역사 깊은 한옥마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남달랐다"며 "우리 손으로 마을이 깨끗해지는 걸 보니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곽종렬 전주지부장은 "지역의 소중한 공간을 함께 가꿨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부는 이번 한옥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더불어 가을에는 담벼락 그리기 벽화봉사도 진행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신천지자원봉사단>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지난 6일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얼음물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세아농기계 부안대리점, 부안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6일에 열린 제9회 동진면민의 날 행사에서 아세아농기계 부안대리점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아세아농기계부안대리점 대표는 "동진면민의 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농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호우 피해지역 긴급 구호활동 전개

대피소에 매트 등 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7일 도내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주시 송전2동 진기·월평마을, 군산·익산·전주·김제 일대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구호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원 등 총 10여 명이 참여해 용소중학교 대피소에 매트 25개, 응급구호세트 15세트, 생수 120병, 마

음구호세트 3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없어 같은 날 오후 모두 귀가했으며 전북지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PFA) 활동을 이어가 불안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회복을 지켜내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춘향로타리클럽, 취약가정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

춘향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정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봉사위원장(임원선) 회원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기부했으며 다른 회원들도 이불과 냄비세트 등을 기부하여 건강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지원받은 가구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소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이미용협회, 외국인 근로자에 재능기부 봉사

순창군 이미용협회가 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9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이미용 봉사 행사에서 협회 회원들은 근로자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올해 3월부터 순창군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농작업 근무는 9월 16일까지 계속되며, 비자 만료로 인해 오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읍, 새활용탐험대와 환경캠페인 실시

임실읍이 지난 4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임실시니어클럽 새활용탐험대와 읍사무소 전 직원들이 동참하여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새활용탐험대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니어클럽은 쓰레기 분리수거 사각지대와 다중이용시설을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임실읍사무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투병 페트병 수거기 사용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유)승복 농업회사법인, 정읍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정읍시 감곡면 소재 (유)승복 농업회사법인이 8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나섰다.

이근창 대표는 "정읍에서 얻은 성과와 혜택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정읍 농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함께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一事一言〉



아이들에게 윤석열·김건희를 토론하게 하라(2)

강민정
전 국회의원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아이들 간 교우관계나 학급분위기, 교실 환경이나 학교문화 등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이들이 단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교육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끼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 역시 교과서로는 답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성인들은 그 무수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떤 교육적 개입이 없다면 쉽게 편향에 빠지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범죄혐의들은, 아이들이 배워온 교과서와 너무 다른 현실, 너무 다른 세상을 아이들에게 날 것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통 사람의 범죄행위들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 대통령 부부의 상상 초월 범죄행각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 아이들 삶과 직결된 국가 교육위원장과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은 아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일로 다가갈 수 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혹시나 갖게 될 잘못된 정보나 판단들이 교정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속에서 혼자 혹은 소수 또래들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사의 생각을 주입하지 않되 사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심지어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일이 벌어져 왔다.

200명 넘는 또래나 선·후배별 학생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세월호 사건 때,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계기수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교사는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공문을 뿌린 곳이 대한민국 교육부다. 대통령 탄핵선고 시 청을 금지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를 움직였던 것이 대한민국 교육현실이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세월호 사건이나 대통령 탄핵을 아이들이 모를 수 있나? 없던 일이 되나? 오히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주지 않으므로써 아이들은 그 사건이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때론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이런 커다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며, 정치적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일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문제를 객관화할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일부 유투버 주장, 부모의 생각, 선생님의 생각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실시간 생중계 매체가 아이들 손안에 들려있는 세상이다. 정보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아이들에게는 대화와 토론, 공론화 경험이 더 많이 요구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삶에서 이런 교육적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수확문제 몇 개 더 풀거나, 영어단어 몇 개 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또한 그런 교육적 경험 속에서 리박스와 같은 극우적 주장이나 사고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힘, 주제적 판단력이 생겨날 수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 부부였고,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차별하지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 학교는 마치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섬처럼 존재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런 섬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기를 요구받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깨지는 요인 중 하나다. 아이들은 교과서 지식에는 유능하지만, 세상일에는 무능한 존재로 자

라나기를 강요받는 셈이다. 아이들을 교과서에 가두려는 사회가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이 모든 일들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교육의 정치중립성' 논리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사회쟁점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는 이를 막고 있는 법적 장치인 교사 정치기분권 박탈 상태 해소애 빨리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김건희 류 범죄행각이 재발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윤석열·김건희를 만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미 현실이 된 지금, 아이들이 그로부터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가을장마,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고음

지난 주말 밤새 전북에 쏟아진 폭우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다. 군산에는 296mm, 익산 256mm, 전주 190mm 등 기록적인 강우량이 관측됐다. 특히 군산 내륙동에서는 시간당 152.2mm라는 관측 사상 최고치가 기록돼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라고 할 정도의 극한 호우를 확인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는 집과 도로, 학교, 철도까지 가리지 않고 피해를 남겼다. 주택과 마을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해야 했다. 전라선 열차가 중단되는 조우의 사태도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최소화됐지만 전북 전체가 잠시 멈춰 설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름 장마뿐 아니라 가을에도 대형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기후위기의 산물이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예상 불가능한 계절성 폭우가 일상화, 연례화되고 있다. 과거 '장마는 6~7월'이라는 고정 관념은 이미 무너졌다. 9월, 심지어 10월에도 장마 못지않은 폭우가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번 폭우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방재 시스템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천 산책로, 국립공원 탐방로, 철도와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순식간에 마비됐다. 도와 각 지자체는 이미 정해진 장마 기간을 전제로 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365일 상시 대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도시 저지대, 농촌 배수시설, 노후 하천 제방

등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 폭탄'이다. 반복적인 대책 점검이 아니라, 구조적 보강과 상시 점검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예측과 대응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이번 폭우로 전북소방본부에는 376건의 안전 조치를, 경찰은 398건의 피해 신고를 처리했다. 그러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침수 지도, 재난 알림 고도화 등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

셋째,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부 주민은 갑작스러운 침수로 고립되거나 대피가 늦어졌다. 지자체가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평소 '재난 훈련'과 '자율적 대피 의식'이 없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빠져선 안 된다. 전북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SOC 예산 확보와 별개로,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호남형 기후적응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재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다.

이번 폭우는 '가을 장마'라는 새로운 재난 양상을 우리 눈앞에 드러냈다. 더 이상 계절적 규칙에 안주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비가 올 수 있다'는 전제를 넘어 '언제든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를 막는 길은 선제적 대비와 근본적 투자뿐이다. 이번 피해가 단순한 자연재해로 묻히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화재 열전



순창 만일사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종교신앙, 불교
-지정일 - 2017년 11월 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103-134 (안정리 337)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간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의자 / 이정록

병원에 갈 체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아야
꽃도 열매도, 그대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
나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찌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문화 의자를 내줘
아찌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
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시인 약력 : 1964년 충남 충성 출생. 공주사범대 일기'가,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월거 교장이다. 저서로는 '별레의 집은 아늑하다', '뫼학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재 시대'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김수영문학상', '윤 사과의 주름살', '아버지학교', '시가 안 써지면 직했다.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시 '농부 동주문학대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만해문예학 나는 시내버스를 탄다' 등이 있다.

지역을 품고, 도민과 함께 걷는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골목상권 종합지원 전담창구’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재단은 2019년 12월 전북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올해에는 11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도심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현재 재단이 진행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및 지원 ▲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실시간 판매 방송(라이브커머스) 지원 ▲ 청년몰 베틀시장(플리마켓) 활성화 사업 ▲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다각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지역 상생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단 역시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상생 관련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역 상권에 활기 불어넣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소상공인 판로 확대 청년몰 베틀시장 활성화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지원 통해 소비 촉진 나서

올해 재단의 가장 큰 성과는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운영과 홍보 강화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만 무료배달 이벤트를 29회 실시하고, 총 9만 건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런 노력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촉진했고, 배달앱 이용자 증가와 지역 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더해 △앱 사용 편의성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동시 전개로 신규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렸다.

지역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도 진행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과 ‘배달의 명수’ 자체 소비쿠폰 운영 사업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7월에는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증가에 발맞춰 ‘배달의 명수’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페이로 연동하기도 했다.

재단은 이런 다각도의 소비 촉진 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여 8월 기준 매출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인 3억 8,800만 원보다 약 37% 올랐다.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얻은 성과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실시간 상거래(라이브커머스) 지원

배달의 명수 활성화 사업과 함께 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한계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성과가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선정된 1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재단은 실시간 판매 방송(라이브커머스)을 진행해 군산 특산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텀블벅, 와디즈 등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도움 예정이다.

다가오는 10월 중순에는 업체 2곳이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우수시장박람회에 출격한다. 참가업체들은 소상공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재단의 후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박람회·전시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권활성화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몰 베틀시장(플리마켓) 활성화로 젊은 상권 육성

지역 상권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창업자와 청년몰 활성화 지원도 눈에 띈다.

재단은 청년몰 신규 창업자를 위해, 간판 제작 혹은 홍보물 지원 등 초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홍보·마케팅도 지원해 청년 상인들의 자립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실제로 재단은 공방, 수산업 관련 체험형 프로그램과 베틀시장(플리마켓)을 결합한 ‘수작 놀이터’를 공설시장 2층 청년몰 내에서 운영하며, 방문객 유입을 이끌었던 성과도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재단은 12월~13일 금양동 도시재생숲에서 ‘달달한 구도심 야



시장’과 ‘뽕야뽕야 플리마켓’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뽕야뽕야 플리마켓’의 경우 작년 시간여행축제에서 선보여 호응을 얻었던 행사이다.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다각화

재단은 작년부터 꾸준히 관내 상권협의체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행정 절차 지원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 설명회, 1:1 컨설팅, 동시서 징구 지원 등 밀착형 안내 활동을 전개해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올해 11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집중된 소비패턴을 가진 지역 소비자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유도할 계획도 진행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한 상권 발굴 역시 계속 이어간다.

재단은 이번 행사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주관기관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월명동의 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 기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펼칠 계



획이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은 “올해는 군산의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며, “내년에는 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시와 재단이 각기 다른 재원을 활용해 추진한 소비촉진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하여 지역 소비 촉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